

윤완철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교수, 본회 연구위원.

과학정신과 현대인의 신앙

과학과 현대정신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 관계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분적이 아니고 느슨하지도 않다. 고등학교때 과학시간마다 잠을 보충하고 대입시험에 과학이 빠지기를 냉수 떠놓고 기원하던 보통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같이 과학의 정신에 몰들어 산다. 그들의 과학적 정신이란 과학철학자들의 정교한 이론 근처에도 가지 않는 그야말로 단순한 것이고 그래서 더 위력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은, 목회자든 교사든 전도자든 또는 기독교 리더쉽을 자임하는 사람이든, 절대로 이 문제를 등한히 지나칠 수 없다. 이 문제는 전도의 재료가 되거나 당장의 교회 성장에 중요하지는 않더라도, 신자 각 개인의 신앙에는 더 없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것은 바로 진실하게 이 시대 교회를 생각하는 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가 된다는 뜻이라고 믿고 싶다.

과학적 정신이 현대인의 세계관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또 거기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느 분야에나 있듯이 현대 과학정신에 대해서도 호들갑을 떨어가며

문제삼는 이들이 간혹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지적 호사가들이거나 자기 전문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알아달라는 먹물쟁이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관심한 인식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기꺼이 과학적 정신을 수용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과학적이 된다는 것은 독특할 지는 몰라도 하등 해로울 게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과는 소위 '쟝르'가 다르지 않은가? 신자 중에도 공학박사 이학박사가 수두룩한데 무슨 문제가 있던 말인가 한다.

그런데 사상이나 신앙도 모두 기본적인 세계관 위에 덧입혀 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인해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눈썹을 보는 것 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우리 자신이 과학의 희생자임을 간단히 부인하는 맹목은 벗어나야 한다. 도대체 왜 우리 시대에 영성이 없고 신앙이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되며 삶은 관성에 맡겨지고 심리적 자극이 은혜의 주된 수단이 되었는가? 이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일반적 해답은 우리에게 숨어든 '왜곡된 과학정신'을 비판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긴급한 진단문제이다. 병을 다 모르는 의사가 약발만 세운다고 환자가 낫겠는가? 약이 너무 좋으니 병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은 바로 돌팔아 먹고사는 사람들의 믿음 아니겠는가? 말씀의 선포자들과 진리의 교사들이 과학에 가려진 현대인의 어리석음을 예리하게 노출시켜 치료할 때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놓임을 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

1. 과학적 사고의 구조 - 법칙과 관찰

오직 과학적 지식만이 만인이 공유할 만한 중립적인 지식이라는 식의 학교교육 덕분에 과학적 방법은 현대인의 생각 방식으로 깊숙히 자리잡았다. 과학에 의하면, 매사에 올바르게 생각하기 위한 두가지 열쇠는 법칙과 관찰이다. 법칙을 찾아내면 우리는 새로운 일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그 법칙이 맞는 것인지 늘 염려해야 하며, 법칙을 검

증하기 위해 가장 믿을만한 뒷받침으로서 관찰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과학자들은 이렇게 연구한다. 우선 과거의 관찰을 수집하거나 새로 관찰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을 가설적으로 세워 본다. 이번엔 그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결정적으로 알 수 있게 될 또 다른 관찰 방법을 고안한다. 그 새로운 시험의 결과에 따라 세웠던 가설을 받아들이거나, 약간 수정하거나, 버리고 다른 가설을 세운다. 그런데 독자들은 이런 설명에 싱거움을 느꼈을지 모른다. 그 정도라면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 아닌가? 맞는 말이지만 바로 그만큼 과학적 방법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원래는 상당히 독특한 사고방식이다. 그 사고방식의 두 기둥이 되는 법칙과 관찰이라는 단어는 사실 서로 매우 다르고 상반되기 까지 하는 것이다.¹⁾ 이 두 기둥은 각기 다른 전제에서 과학이라는 공동의 작업에 참여하였고, 또한 서로 다른 방향의 문제를 사람들의 정신에 야기한다. 법칙을 발견하려는 것은 사물의 표면적 모양이나 행태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보다 보편적인 본성을 파악하려는 의도이다. 법칙은 개별적 경험보다 더 예측력이 있고, 자기 검증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칙의 추구를 통해서 정제된 지식을 안정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관찰은 반면에 아주 개별적이다. 법칙을 너무 쉽게 만드는 것이 틀린 상식을 갖게 하는 주범이라면 잘못된 법칙을 적발하여 견제해 주는 것이 관찰이다. 반면 관찰이란 개별적이어서 가능한 관찰의 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는데, 법칙을 가설적이라도 세워 놓으면 효율적으로 필요한 관찰만 골라서 할 수 있게 된다. 관찰만 추구하는 자는 무지와 미신에 빠지

1) 다빈치 시대 이후의 근대과학이 그리스나 중국에서 이루지 못한 발전을 보았던 것은 과학과 기술의 만남때문이었다. 과학과 기술은 그 주관자의 사회적 거리만큼 거리가 있는 것이 역사적 현상이었으나 르네상스의 이탈리아에서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너무 간략화함을 무릅쓰고 말한다. 과학은 법칙을 추구하고 기술은 관찰을 제공하였다.

고 법칙만 추구하는 자는 독선과 오류에 빠진다.

대비해서 말하자면 법칙은 보편성이나 체계를 지향하고 관찰은 사실성을 추구한다. 보편적 본성에 대한 이해와 사실성의 확보는 둘 다 진리의 탐구에 있어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과학의 한계가 드러난다. 법칙은 바로 본질이 아니며, 관찰이란 인간의 제약된 경험능력과 상상력에 의해 선택된 일부의 사실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수단에서의 경도는 현대인의 세계관에 깊이 각인되어 모든 생각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과학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일수록 그 왜곡의 정도와 사로잡는 마력은 오히려 높아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2. 본질 대 법칙

익은 배는 떨어지고 까마귀는 날아 오른다. 그러나 그 상반된 두 현상의 배경에도 하나의 보편적 법칙이 존재하리라고 믿는 사람의 눈에는 중력의 법칙이 보인다. 새가 가만 있어도 원래 날게 되어 있는 것이라면 수고로운 날갯짓은 안해도 될 것라는데에 생각이 미친다. 눈에 안보이는 중력의 개념으로 배가 왜 떨어지며 까마귀가 왜 날개를 갖고 있는가가 통일성 있게 이해된다.

통일성있는 이해를 기하는 것이 법칙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물질의 구성에 대한 지식도 법칙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물질의 화학식을 알면 그 여러가지 성질들에 대해 통일된 설명과 예측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통계도 여기 관여한다. 개별적 경험에 속지 않고 일반적 법칙에 충실함으로써 더 옳은 현상파악과 결정들을 할 수 있다. 법칙과 구성을 알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안정되고 예측력있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법칙이나 구조가 사물의 본질과는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시 한다는데 있다. 법칙이 비록 체계적 설명을 지향하지만 체계적이 된다는 것, 또는 일관성을 갖춘다는 것이 곧 본질적 진리를

얻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설명했다 하더라도 그 법칙이 사과를 떨어 뜨리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떨어지는가를 표현할 뿐, '왜' 떨어지는가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질에 가까이 가려는 질문은 반드시 '왜'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어떻게'나마 보편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우주에 실재하는 법칙'이라는 관념을 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리해 놓은 수식으로 된 과학 법칙이 곧 그 법칙은 아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표현범위 내에서 우리의 여태까지의 관찰을 잘 요약해 주는 수식일 뿐이다.¹⁾ 뉴턴의 역학법칙은 인류가 법칙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큰 계기가 된 것인데, 수백년동안 현상을 잘 설명해 오다가 20세기에 들어와 가능한 관찰의 범위가 넓어지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에 자리를 내 주고 말았다. 뉴턴의 역학식은 일상적인 물리문제에는 여전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 경험세계에서 통용되는 수식이 우주에 내재하는 인과관계의 본질과는 별도의 것이라는 점을 깨우쳐 주는 예가 되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거기 관여하는 법칙들로 설명되면 그 본질이 알려졌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나뭇잎의 색소의 구성비율이 바뀌어 단풍이 드는 과정을 누가 밝혀 내면 사람들은 '왜' 단풍이 드는지 알았다고 한다. 이것은 과정을 아는 것과 원인을 아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전에는 엔들핀 등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의 두뇌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을 찾아낸 결과를 타임지가 소개하였는데, 사람들의 주된 반응은 이로써 사랑의 신비마저 밝혀지고 말았다는 허탈감이었다. (반대로 과정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사람들은 느끼게 되었다.)

1) 여기 대하여는 실재론(Realism)과 반실재론의 대립이 있고 질층적 입장들이 있다. 필자의 견해는 극단적(Hard) 실재론이나 너무 회의적인 입장은 불가하다고 보고, 우리가 알고있고 또 인식하거나 표상가능한 범위의 법칙은, 실사 근사적이 됨은 피할수 있더라도, 불가피하게 모형적, 즉 제한되거나 은유적이 된다고 믿고 있다.

비록 우리가 현미경과 여타 도구로써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관찰하고 감취었던 과정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태고의 비경을 탐험하는 기분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의 '내부'를 보는 것은 아니며 접혀졌던 표면을 펼쳐 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대개는 '밝혀졌다고' 한다.¹⁾ 그 결과, 세상에는 그러한 법칙과 과정 말고도 탐구할 만한 본질적 지식이 있으며, 우리가 원래는 바로 그것을 찾으려고 출발했었다는 사실이 전설처럼 잊혀지게 되었다.

사물의 구성이 본질과 동일시 된 것은 더 오랜 역사를 가진다. 고대 회랍의 철학자들은 세상이 무슨 원소로 되어 있는지 논쟁하였다. 그 성분을 알면 세상이 일목요연하게 설명되고 본질에 대한 직관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원자이론이 확립되고 원소들이 발견되면서 인류는 드디어 물질의 본성을 알게 되었다는 만족감을 가졌다. 원자의 중심에는 핵이 있고 전자는 그 주위를 돈다는 것으로 명쾌하게 시작된 원자 이론은 그러나 중간자, 중성미자, 그리고 오메가 마이너스 입자등의 발견으로 끝없이 이어졌고 모형은 오히려 점점 복잡하여져 갔다. 이제 누구도 세상의 본질이 다음 번 발견되는 소립자로부터 드러나리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느낀다. 원자에 대한 연구는 사물의 본질을 밝히려는 노력이었으며 (이에 대한 재평가는 생략된 채), 우리는 더 이상 알기를 원하지 않을 정도로 원자에 대해서 알았고, 따라서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의문은 소멸되었다 라고 느낀다. 사실상 아무 대답도 얻지 못한 채로 사람들은 참된 지식에 대한 모처럼의 의욕을 거두었고, 그 뒤에는 공허감이 남았다.

과학이 밝혀낸 어떠한 과정이나 구성도 세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인생과 세상의 의미에 대하여 빛을 던져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표면적 현상의 체계적인 요약이나 통찰력있는 표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1) 사실 무엇이 다 밝혀진 것으로 보도되고 알려진 그 시점후에도 정작 그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아직 모른다는 것을 알며 다음 양파껍질을 벗기려 힘겨운 싸움을 한다. 이것은 외로운 작업이다.

는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등 자연과학 뿐 아니라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에 서도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된다. 그것은 바로 과학과 그 방법론의 본래적 한계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과학에 물을 수 없는 것을 묻고, 대답이 아닌 대답을 듣고, 그리고 원래의 심오한 질문과 그 지적 갈증을 잊어버리는 길을 걸었다. 이것이 과학이 삶과 세상의 신비에 대한 인간의 즐기찬 탐구욕을 무력화시키고 세계관을 허무화시키는 경위였다.

3. 사실 대 관찰

과학적 방법의 요강은 한 걸음을 가도 황소걸음을 가자는 것이다. 즉, 맞는 말을 다 못하는 한이 있어도 틀리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틀렸을 때 반증할 수 있는 길이 있는 명제가 아니면 과학적 명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준이 생겼다. 반증은 관찰에 의한다. 관찰되지 않는 것은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금세기 초에 인지심리학이 보이지 않는 마음 속을 연구한다는 죄로 과학에서 쫓겨(?) 났다가, 컴퓨터 등장 이후 인간도 정보처리기관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그 내적 기능에 대한 실험적 관찰법을 구비하고서야 다시 복권(?)되었던 예가 있다.

관찰될 수 없는 사실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말은 옳다. 그러나 이 말은 과학의 활동범위에 그런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이지, 관찰할 수 있는 사실만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과학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너무나 쉬운 말장난 같지만, 근대 철학에는 극단적인 실증주의 사조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학교교육도 이러한 혼동에 집단적 원인을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누구나 가져야 할 중립적인 지식만을 전달해야 하고 그것은 곧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실증적인 지식은 힘있게 가르치고 다른 것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말꼬리를 흐리게 된다. 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알아채고 적응하여, 물질세계나 표면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외의 지식은 다 시험에 나오지 않고 불확실한 것이며 선택적인 동시에 개인적이며 따라서 변두리 지

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신앙은 그런 것이다.

관찰중에도 정성적인 관찰이 있고 정량적인 관찰이 있다. 정성적인 관찰은 사람마다 주관과 표현에 차이가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하기 곤란하다. 반면 측정되고 숫자로 나타내어지면 객관성을 주장하기 쉽다. 따라서 과학적 방법에서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정량적 관찰을 얻으려 한다. 그 외중에 정량적 관찰이 가능한 성질은 중시되고 그렇지 않은 성질은 회피된다. 이것은 명백히 과학적 방법의 제약 때문에 생기는 차별이지만, 사람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사물의 정량적인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들으며 사는 동안 측정될 수 있는 것만이 실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공장 부지의 선정에 있어 주변 환경에 대한 정서적 고려는 무시되고 물류비용은 0.1%단위까지 비교 분석된다.

관찰은 과학의 최대의 자랑인 객관성을 뒷받침해주는 방법이지만, 여기에도 커다란 함정이 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관찰 대상이 있어서, 무엇을 관찰하여야 도움이 될는지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현재 시험해보려는 가설을 증거하거나 부인할 수 있으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관찰을 계획하게 된다. 효율적인 관찰이란 곧 가장 적은 수의 관찰을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원래 계획된 가설 외의 요소가 관찰에 개입하는 것을 가급적 배제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사실 이것이 노련한 과학자들의 주된 기술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은 딜레머이다. 관찰은 원래 인간의 상상이 마음대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용도로 채택된 방법이었는데, 결국 인간의 상상력을 뒤따라 가며 묻는 말에만 오 엑스 대답을 하도록 제어되고 있는 셈이다.

인간은 객관적으로 잘 통제된 관찰의 행위가 없이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왜곡시킨다. 그런데 그 주된 이유는 인간 지각과 인식능력의 제약 때문이다. 그에 비해 세상에 널려있는 '사실'은 너무나도 풍부한 것이다. 무지개에는 무한대에 해당하는 수의 색이 있는 것이지만, 인간은 일곱가지 색 무지개라느니 '5색' 영롱하다느니 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사실'은

풍부한데 관찰자가 제한되게 관찰할 때, 제 마음대로의 취사선택이 일어날 것이고 임의적인 해석이 불가피해진다. 그러면 지식의 사회적인 축적이 불가능해 질 것이다. 그리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나 옳음을 추적하려는 과학자로서는 정해진 관찰방법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제한된 관찰은 명백히 원래 그대로의 '사실'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관찰이 강조되는 현대적 교육의 결과, 과학적 사실을 사실이라 하고, 그 외의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요물(사실은 존재하지 않는)이 빚어내는 환상정도로 생각하여 임시적이고 실용적인 중요성만 부여하는 세계관이 특히 과학도 사이에는 만연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의 세계와 삶의 세계가 다시 분리되는 이원론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¹⁾ 그들의 마음에서 관찰된 사실이 아닌 존재하는 '사실', 즉, 그들의 세상과 그들의 삶이 그 전체성과 중요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그 본래의 깊이로 다루기는 어려운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인간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실제적 방도로서는 그래도 과학적 관찰이 '최고' 인가 하고 스스로 문의해 보자. 오류를 줄이는 면에서는 그러하지만 범위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선입견없이, 이 세상 사물과 경험을 마치 풍경을 인화지에 감광시키듯이 자신의 가슴에 '감광'시켜 포착하는 예술가나 작가들이 더 '많은' 사실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도 새로운 사실에의 통찰과 그로 인한 획기적 개선은 방법론을 갖추어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현장에서 현실을 오래 몸으로 겪는 (즉, '감광'시키는) 작업자나 관리자에게서 나온다.

1) 이러한 일반지식인들의 이원론적 사고가 그들을 기독교에 너그럽게도 만들고 신앙일체를 가볍게 생각하게끔도 만든다. 너그러움이란 실상 가법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4. 왜곡되는 기독교 신앙

과학은 기독교 신앙과 상극인가, 원조자인가, 아니면 무관한가? 이 질문은 기술문명과 신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과 구별되어야 한다. 또 이 질문은 다른 책들이 기독교 과학자가 나아갈 길에 관련하여 묻고 대답하는 것과 다르다.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사고방식이 기독교 신앙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신중한 의문은 필요하다

우선 하나님은 못믿을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분이 아니심을 지적해야 하겠다. 하나님은 인간이 제약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믿을만한 상황, 즉 경험을 주시고 믿으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적어도 진리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의미에서 '과학적인'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성이 핑계치 못할 정도로 만물에 보여 알게 하셨다고 쓰고 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경과 대조하여 점검하던 베뢰아의 신자들은 의심 많은 자들이 아니라 신사적인 사람들로 평가되었으며,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확인하러 왔던 나dana엘은 참 유대인으로 칭찬받았다. 예급의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은 상상의 신이 아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그들 조상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으로 선포되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며 그 아들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을 계시하셨으므로, 요한은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증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식에 있어 모든 조심스럽고 합리적인 시도를 비신앙으로 치부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 사람들이 모두 쉽게 믿는 성격이 된다면, 예수의 제자보다 온갖 저급종교와 이단의 제자들이 더 빨리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깊이 뿌리박은 과학적 사고방식은 오히려 비합리적인 편견도 많이 심어 놓았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고질병이 되어 신앙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

다. 여기에서 위에 거론한 과학적 사고의 특징을 하나씩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칙을 찾는 신앙

법칙의 수립이라는 과학적 방법은 관찰을 종합하고 현상을 예측하게 해 준다. 현대의 지식인은 법칙에 착념함으로써 개별적 경험에 미혹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나머지 현대의 거의 모든 사람은 기독교 신앙도 법칙으로 이해하려 하고 법칙이 없는 경험은 무시한다. 경험에 속하는 성경의 증언과 계시를 법칙에 묶으려 한다. 그런데 인간이 상정할 수 있는 법칙이란 그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연장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인간의 법칙으로 각색된 하나님 이해는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적일 수도 없다. 산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큰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법칙이 아니라 그 분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경험을 전달하고 있지만, 현대인들의 성경공부는 그것을 한 인간을 통한 인격적인 간접경험의 대상으로서 읽기 보다는 온갖 교훈과 법칙을 찾아내는 지문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요한이 놀라움을 회상하며 전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대목에서, 그 요한이 경험한 경이와 새로운 인식에 동참하기 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논리적 설명과 기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법칙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구원 마저도 구주가 아니라 구원의 과정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자연스레 대체시키는 현상이 만연한다.

최초 최고의 신학자라 할 수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추구했는가? 그의 충만함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자 어떻게 갈구하였던 것은 빌 3:7~12에 나타나 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이러한 바울의 그리스도 관의 깊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어받고 있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측하고 속박하려는 조작적 신앙관이 보편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하나님을 법칙에 종속된 제삼자로 이해하고 그와의 관계를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 조종해 나가려는 식의 신앙을 조작적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뻔소리’하실 수 없도록 약속된 성경구절들을 인용하여 기도하라고 권해지기도 조차 한다. 한없이 귀중한 뜻을 담은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구원얻음’이라든가 ‘경건의 능력’, ‘합력하여 선을 이룸’,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등의 언어들도 조작적 신앙을 추구하는 분위기에서는 요상한 용법으로 변질되고 만다. 이런 것은 극단적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식으로 요점을 추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거의 모든 노력이 근본적으로 조작적인데, 모두들 현대과학기술의 조작적 정신의 세례를 받았으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도통한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경외와 순종과 사랑의 대상이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회복되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다시금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I am who I am”의 뜻을 새겨야 한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마저 새삼 목소리를 낮추어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다’ 라고 말해주면 내심 깜짝 놀라곤 하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

1) 그런데 이 귀찮아져도 몇개의 신학적 원리와 실천적 원리로 나누어 설명되고 끝나는 것은 처절하다. 우리는 정말로 법칙에 경도되어 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

또 법칙이나 과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본질을 알았다고 치부하는 경향을 위에 지적하였었다. 이것은 인류가 이 세상의 비밀을 거의 알고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을 준다. 사실상 과학자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에 모르던 과정들을 밝혀 내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새로 알게 된 것일 뿐 그 현상의 의미에 대해 전보다 더 많은 지식을 주고 있지는 않다. 어떤 현상을 참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과정의 서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떻게 바이러스가 인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나 죽음이 무엇인지와 그 의미에 대하여 더 알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하여 물을 수 없게 되었다고 여긴다. 이제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하나님 없이 이해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신자들은 당혹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간이 도무지 남지 않은 것이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은 과학에 의해 규명되고 있으며, 그것은 곧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끝방에 모시고 있다. 정서적인 문제, 알 수 없는 우연의 문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가지 미묘한 조정의 문제만이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으로서 본질을 알게 되지 못하였으며, 모든 현상의 궁극적 이해에는 하나님과 인간, 세상에 대한 참된 지식이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안에서 보도록 눈을 비벼 뜨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신앙은 삶과 유리된 지극히 가볍고 약간의 주술력이 있는 장식품같은 것으로 남게 될 것이다.

1) 사실 과정의 과정, 다시 과정의 과정으로 물어 들어가다 보면 점점 무의미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게 될 뿐이다.

보이지 않는 신앙

관찰에 의존하는 과학적 방식도 사람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보이는 것만을 근거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믿음이 그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감정적인 지식이고 최종 인준이 보류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구조 하에서 신앙이 설 자리는 매우 궁색하다.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을 집이라면 신앙은 본집에 기대어 각목과 천막으로 지은 가건물 같은 형국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능한 관찰만을 기반으로 하여 세상을 이해하려는 경향은 자기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곧 세계라고 믿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어느 영국작가의 소설에 장님 나라 이야기가 나온다. 언제부터인가 모두 장님이 되어버린 나라에 전설처럼 풍경등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오지만 그 나라의 현인들은 잘 정제된 철학적 전통에 따라 그런 전설을 미신으로 일축한다. 그 나라에 어쩌다 진짜 눈 뜬 사람이 들어 와서 보이는 것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하자,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미신적인 '신비현상'에 갑자기 관심을 갖는다. 나라의 장로들은 조사 끝에 그 사나이의 얼굴 전면 양쪽에 있는 기형적인 구멍이 뇌에 착각을 일으킨다고 결론짓고 그 구멍을 제거하자고 한다. 관찰과 측정만을 지식의 근거로 하려는 현대인들은 이런 식의 철저한 터널 조망에 빠져 있다. 그들에게 신앙은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을 넘어설 수 없으며 자신의 인생을 던질 지식은 못 되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히브리서의 통찰은 얼마나 예리한 것인지.

개인적 의견인 신앙

법칙과 관찰에 기반을 둔 과학은 모든 사람이 공인할 수 있는 객관성을 추구한다. 그 추종자가 아닐 수 없는 현대인들은 공적인 지식을 우선으로 여기고 가르치며 배운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임의적으로 선택된 개인적 지식이다. 그런데 거기 집착하여 남다른 생각과 행

등을 하며 사는 것은 별나 보일 수 밖에 없다. 교회를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설을 진짜 믿는가 하며 의아해 한다. 더구나 그것을 잣대로 하여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윤리를 평가하고 무엇인가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건전치 않게 보이는 것이다. 신앙은 개인적이고 증명 안되는 것이니 만큼 남에게 강요하거나 공적인 생활에 적용하지 말고 개인적인 것으로만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건전한 상식이 되어있다.

신자들도 세상 교육을 받은 만큼 대개 스스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회의 눈을 의식하여 소극적이 되어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담대히 이야기했으나 오늘의 지식층 신자들은 조심스레 개인적 의견으로 삼아 말할 뿐이다. 신자들은 교회에서는 목회자들과 열심히 있는 리더들의 말과 행동을 표준으로 인정하지만, 그 표준이 사회의 표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자신 사회의 표준을 떠나지도 못한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는 목사보다 '정상적'이면서 신앙적으로는 다소 열심이 모자란다는 식의 절충적이고 온건한 '보통신자'에 머물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이런 인텔리 신자들을 교회의 여러 활동에 끌어들이 열심을 북돋우려 해 보았자 몸은 바쁘게 할 수 있어도 내면의 신앙에 성장이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해야 할 일

과학으로 말미암아 현대인은 어느 때의 인간보다 자연에 대해 유식하고 현명하다. 그러나 그만큼 다른 부분의 생각의 자유를 잃었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길을 차단당했으며, 제한된 과학적 방법에 대한 어설픈 이해가 가져온 우상과 신화에 얽매어 있다. 우리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신자가 여기서 예외에 속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시대적 정신에 뿌리부터 물들어 있음을 참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결코 신앙의 새 살이 돋을 수 없다. 새로운 정신의 근거에서 창조주를 인식하고 자신의 의미를 인식하고 삶과 무게와 감각을 되찾는 작업을 의식적으로 벌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다른 이야기들이 쉽게 풀어져 사람들에게 늘 설명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하시지요? 적어도 잠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지요? 그것은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한 안목을 가지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점을 바꾸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꼬집어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학적 사고를 해부하지 않고도 전혀 새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도 보아왔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또한 경험에 호소하여 새로운 영감을 불러 일으켜 한 사람 안의 ‘과학적 인간’이 보지 못하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다. 이른바 촛불을 밝혀 어둠을 쫓고 바른 것을 들어 거짓된 것을 이기는 방법이다. 사실 많은 유능한 설교자들이 하는 일이 이것이다. 이러한 좋은 설교에 오래 노출되고 그 생각들을 곱씹고 익숙해지다 보면 대안적(alternative) 세계관이 형성되고, 그에 대조하여 자신의 왜곡된 세계관을 어렴풋이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무척 집중적인 입력과 집중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고도의 지적작업이다. 그리고 상당한 비평적 사유력을 필요로 한다. 자기자신에 대한 ‘반란’을 시도할 정도의 타고난 ‘반골’도 드물거니와 그 능력까지 가진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은 법이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는 되었으나 이러한 내면적 자기비평을 의식적으로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통일되지 못한 ‘혼합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심지어 철학적인 토론으로 이원론을 비판할 줄 안다고 해서 이 혼합된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신자가 예외로 남게 될까? 그러므로 개별적 사념에 대한 의식적 비평은 필수이다. 그게 더 쉬운 길이다.

결국은 요즘 광고용어마냥 ‘꼭 꼭 짚어서’ 잠재적인 왜곡된 과학정신을 밝혀내고 반(反)세뇌의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은 자신의 메마른 가슴속에 막혔던 수로를 발견하게 되고 이를 수리하고 수문을 열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회에 따라 말씀이 새로운 깊이로 흘러들어와 인생을 새로운 경이의 눈으로 보게 하며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할 것이다. 문제는 누가

어디서 그렇게 콕 콕 짚어서 가르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주일학교가 보다 본격적인 교육의 장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세상에서 받는 독이 많으면 해독작용도 더 본격적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 막연한 보약만 먹고 있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그 가르칠 지식 보다 오히려 더 필요한 지식이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바로 자기 학생에 대한 지식이다. 배울 준비는 되어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무엇을 어려워 하는지, 자꾸 혼동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모르고서는 도무지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없다. 선생은 나름대로 바른 말을 하지만 학생들은 역시 나름대로 잘못 알아 들을 때, 교육은 표류한다. 그와 같이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도 신자들의 정신의 구조와 그 기초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신자는 기본적으로 과학적 신자들로서 독특한 정신기반을 가지고 있어, 그 위에 믿음이라는 건물을 바로 공사하기가 쉽지 않다. 신자들의 생각구조에 대해 무지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상실한 선생이 되는 것은 무능한 일이다. 자신도 배우는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에 젖어 있어 마음 편하게 함께 표류하는 것은 나태하고 기만적인 일이다. 그리고 그 어느 쪽이든, 이름만 선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